

'2023 전국체전' 300일 앞 목포시 성공개최 준비 박차

도지사·시장 등 1천여명 참석 목포역 광장서 기념행사 개최

목포시가 2023년 제104회 전국체전이 개최 300일 앞으로 다가오는 가운데 체전 개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목포시는 지난 15일 목포역 광장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 박홍률 목포시장, 도·시의원, 기관단체장, 체육계 인사, 시민 등 1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104회 전국체전 D-300일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양대체전 대회기 입장으로 시작했으며 기념사 등에 이어 성공 개최의 염원을 담은 전국체전 카운트다운 시계탑을 제막하며 전국체전과 장

애인체전의 성공적인 준비를 알렸다.

또한 목포시립합창단, 전자현악단 공연, 목포 출신 가수 박애리&팝핀현준 공연 등으로 성공기원의 의지를 높였다.

목포는 제104회 전국체전의 주개최지로 오는 2023년 10월 13-19일 개·폐회식과 함께 육상, 축구 등 12개 종목이 진행된다. 제43회 장애인체전은 2023년 11월 3-8일 육상, 볼링 등 8개 종목이 열린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내년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은 개항 이래 목포에서 주개최지로는 처음 개최되는 대회다. 시민의 힘과 지혜를 모아 준비해 양대체전을 계기 삼아 목포시가 스포츠관광도시이자 전지훈련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목포수협·한여련분회, 사랑海 김장김치 나눔

어렵고 힘든 연말 따뜻한 겨울나기 이웃사랑 펼쳐

목포수협이 서남권 친환경수산물종합지원단지 위판장에서 사랑해 김장나눔 행사를 가졌다.

목포수협 임직원과 목포수협 한여련분회 회원들은 지난 16일 목포수협 서남권수산물종합지원단지 위판장에서 '이웃을 위한 사랑해 김장김치 나눔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목포수협 한여련분회 회원들이 손수 담근 김장김치 1500여 포기(3600kg)를 어업인 및 수산단체 및 기관, 목포시 주민센터·아동센터 등에 전달, 온기를 나눴다. 특히 김치나눔행사가 예년보다

감소하면서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온정의 나눔이 줄고 있다는 소식에 목포수협과 한국여성기업인연합회 목포수협분회가 발을 견여 부치고 나섰다.

김정룡 목포수협 조합장은 "목포수협 임직원들과 한여련 회원들이 정성껏 담은 김장김치가 어려운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온정이 넘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목포경찰서, 주민 안전 집중...자은파출소 준공식

"교류·소통의 장이 될 것"

목포경찰청은 자은면 주민들을 치안을 담당 자은파출소의 공사를 마치고 최근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신축한 자은파출소는 부지 531㎡(160평), 지상 2층 규모이며 고령인구가 많은 자은면 주민들의 편

의를 고려해 조사실, 화장실 등 내부 공간을 대폭 개선했다.

준공식에서 이준영 목포경찰서장은 "지역경찰관서가 지역주민들과 서로 교류하며 소통하는 장이 되고 더욱더 지역안전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그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영광실내수영장 격일제 운영합니다

물 절약 실천...2023년 1월 1일부터 가뭄 해제 시까지

영광군이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 상황에서 내년부터 가뭄 해제 시까지 영광실내수영장을 격일제(화·목·토·일)로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강수량 부족으로 우리 군 상수도 수원지와 농업용수 공급 등이 가뭄 심각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물 절약을 실천하기 위함이다.

또한 영광군은 가뭄 극복을 위해 지난 11월 21일부터 스포티움 내 수영장 샤워실 및 화장실에 사용하는 상수도를 종합운동장 관수로 지하수로 대체

사용하고 있다. 또한, 절수형 변기·샤워기 설치, 물 절약 홍보 등 가뭄 극복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이상 기후로 인한 심각한 가뭄으로 군민들께서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다"며 "공직자와 관공서부터 솔선수범하며 생활 속 물 절약을 실천하고 군민들도 물 절약 실천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영광=이준용 기자 jylee@kwangju.co.kr

신안군, 대통령상 이어 국무총리상...상복 터졌다

대한민국브랜드 대상 최우수상 지난 11월 지방자치경연 최고상

신안군이 대통령상에 이어 국무총리상을 받는 등 상복이 터졌다.

신안군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산업정책연구원 등이 주관하는 '제 24회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국무총리상인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최우수상은 130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반월·박지도의 퍼플섬이 연간 40만여명이 찾는 세계적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컬러 마케팅을 활용한 경영전략, 브랜드 파워, 운영 노하우 등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브랜드로 가치를 높인 점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앞서 올해 초인 1월에는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한 '제 1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에서 역량 있는 시민공동체 분야에서 우수기관의 장려상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2월에는 '2022년 코로나 위기관리 평가(지방자치분야)'에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주민참여형 개발이익공유제 등으로 대상을 차지하기도 했다.

또 2월에는 한국지방정부학회에서 지방정부 정책대상 우수상과 주민친화적인 행정서비스인 프라를 갖추고 주민 만족도 우수상을 받았다.

이어 3월에는 유엔세계관광기구에서 퍼플섬을 세계최우수관광마을로 선정되면서 세계 언



지난 15일 열린 '제 24회 대한민국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국무총리상인 최우수상을 받은 이정수(오른쪽) 신안군 기획홍보실장이 박우량 신안군수의 수상 소감을 전하고 있다. <신안군 제공>

론들이 뜨거워 관심으로 주목하기도 했다.

4월에 친환경농업평가에서 대상을 받았고, 10월에는 신생활동 경연대회에 신안주민 아동과 엄마들로 구성된 '퍼플리아' 팀이 건강 체조 공연으로 우수상을 받는가 하면 전남도 도시 숲 우수사례 공모 우수상, 국립정신건강센터로부터는 2022 지역사회 정신건강 우수프로그램 및 사업 공모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특히 11월 행정안전부 주관한 '제 18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연대회'에서는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해 신안 주민들을 즐겁게 했다.

이달에 들어서는 2022년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시상식 및 성과발표회에서 국가균형발전위

원회로부터 우수사례 표창과 행정안전부 주관 제 12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단체 생산성 대상 우수기관으로 발탁됐다.

신안군은 여기에 지난 3월 입자대교가 개통된 입자도의 입자대교해수욕장의 해변 숲이 국내 유일하게 국제인증도를 획득하는가하면 세계자연유산 갯벌 보전본부 유치에도 성공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조금 더 깊고 넓게 분석하고 창의력을 집중해 모든 직원들이 주어진 업무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충실해 준 결과가 오늘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 같다"고 소감을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경제활성화 최우선... 해남군 2023년 예산 8721억 원 편성

민생·안전 인프라 등 집중 투자 경기침체 대비 전략적 재정 운용

해남군은 2023년 본예산을 8721억원 편성했다. 전년 대비 322억원(3.83%)이 늘어난 규모로 일반회계는 8369억원, 특별회계는 352억원이다.

군은 내년 전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금융위기가 예측되고 있고, 각종 물가 상승 등으로 군민들의 체감 경기 하락이 우려되는 만큼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목표로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

특히 내년은 민선8기 주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인 만큼 군민과의 약속을 시행하고 군의 장기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생활복지

기초인프라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자를 확대하였다.

분야별로는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전년 대비 89억원 증가한 2822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2.4%를 차지하였고, 사회복지분야 1812억원(20.8%), 환경 분야 843억원(9.7%), 문화·관광 분야 623억원(6.0%) 순으로 예산을 배부했다.

농림어업 발전을 위해 어촌뉴딜300사업 4개소 134억원, 농어민 공익수당 100억원, 친환경인증 부표보급 88억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60억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20억원, 농산물 종합가공 지원센터 증축공사 18억원 등을 편성했다.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후상수도관 정비, 노후 정수장,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등 맑은 물 공급을 위해 217억원,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등 원활한 하수처리를 위해 163억원, 구교지구 근린생활형 체육관 건립 18억원, 도시계획도로 정비 17억 등을 편성했다.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3개소 55억원, 화산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24억원을 반영했으며, 중대재해 사고 방지를 위해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5억원, 모든 감염병으로 보장을 확대한 군민안전보험 1억 3000만 원을 편성해 군민 안전에 중점을 두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해남사랑상품권 발행에 자체 군비로 129억원을 편성했고, 청년일자리 11억원, 신중년 일자리 9억원, 소상공인 점포경영개선 4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해남군 교육재단 설립을 위해 34억원을 반영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완도군, 최대 해조류 산지 거점 조성한다...사업비 168억 확보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 선정 금일읍 화목리에 특화공간 건립

완도군이 국토교통부 주관 '2022년 도시재생 뉴딜 사업(특화재생형)' 공모에 선정돼 총 사업비 168억 원을 확보했다.

군은 사업 선정으로 2023년부터 4년간 168억 원을 투입하여 금일읍 화목리 공공도서관 앞 군유지 등을 활용하여 해조류 특화 공간을 건립하고, 해조류 특화 브랜드 창출로 금일읍을 '국내 최대 해조류 산지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국내 최대 해조류 산지 거점이 조성되면 지역 자원의 부가가치 확대를 통해 소득 증대에 보탬이 되는 물론 정주 여건 개선으로 도시 활력 회복, 사업·창업·운영 등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지난 7월 국토교통부의 변경된 '새 정부 도시재생 추진 방안'에 발 빠르게 대응한 결과물이다.

군은 다시마를 전국 대비 70%를 넘게 생산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특화재생형) 대상지로 선정된 금일읍 전경.

금일읍에 해조류 6차 산업 거점을 조성해 고부가가치의 해조류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해조류, 섬, 해양 관광 등을 도시재생 모델로 삼아 공모 사업을 준비했다.

특히 40년 넘게 금일 다시마를 구매하며 인연을 맺은 ㈜농심과 해조류 특화 상품 기술 컨설팅, 홍보 마케팅을 지원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실무 역량도 총 동원하였다.

11월에는 전남도 1차 평가를 통과하였으며, 국토교통부에서 22개 자치단체 사업을 평가하여 완도군이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도시재생 사업의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 내 군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무안군, 행안부 정보공개 종합평가 최우수

무안군이 2022년도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정보 공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59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외부 전문기관 위탁평가를 통해 사전정보, 원문공개, 청구처리, 고객관리 4개 분야 10개 지표에 대해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실시해 전문적인 심사를 거쳐 확정됐다.

특히 무안군은 군민 관심 정보를 미리 공개하는 사전정보 충실성, 청구처리 적정성, 고객 수요 분석 등 고객관리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김산 무안군수는 "앞으로도 투명한 정보공개 업무추진을 통해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무안군청 정보공개 창구.